

Document

[달빛 연못]

개구락이가 아직 두 발로 멀리 뛰지 못하던 시절, 그는 물을 극도로 무서워했다. 마을의 또래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재잘거리며 수영을 즐길 때도, 개구락이는 그 옆에 있는 돌맹이 위에서 떨어질까 봐 벌벌 떨기만 했다. 물은 깊고 차가우며, 자신을 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다.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고, 어느 날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연못으로 데려갔다. 그 연못은 '달빛 연못'이라 불리며, 수면에 비친 달빛이 마치 은빛 천처럼 퍼지는 신비한 장소였다. 마을에서는 이 연못을 '개구리 가문의 첫 수영터'라 불렀고, 아이들은 모두 그곳에서 처음으로 물과 인사를 나눈다.

그날은 벚꽃이 거의 다 진 초봄의 끝자락, 늦은 오후였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초록 이끼가 자라 있었고, 나뭇잎이 둥글게 말려 앞배가 되어 뚱뚱 떠다니고 있었다. 바람이 거의 없었고, 그 대신 새소리와 먼 개울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도롱뇽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엄마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손을 담그며 말했다. "이 물은 네 외할머니가 처음 발을 담근 물이야.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곳이지. 오늘은 너 차례란다."

개구락이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물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건 연못의 한 가운데에 피어 있는 '달수련'이었다. 낮엔 보이지 않던 수련은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주 천천히 빛을 내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물속에서 은색 비늘을 가진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개구락이 앞으로 다가와 앞배 밑을 지나갔다. 그 조용한 물고기는 마치 안내자처럼, 개구락이가 발을 담그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에게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건 '처음의 돌'이란단다. 우리 가문에선 이 돌을 연못 바닥에 던지면서 용기를 낸단다." 개구락이는 떨리는 손으로 조약돌을 던졌고,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동심원은 마치 그의 마음속 불안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 동심원은 곧 연못 위에 비친 달빛과 만나며 희미한 빛의 흔들림을 만들었고, 개구락이는 그걸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조심스레 연못에 발을 담갔다. 물은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고, 연못의 바닥은 부드럽고 따듯했다. 엄마는 개구락이의 등을 살며시 밀어주며 말했다. "물은 널 안아주는 거야. 삼키는 게 아니라, 네 몸을 기억하는 거야." 그 말에 개구락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몸을 물 위로 띄워보았다. 그 순간, 연못 위로 정확히 보름달이 떠오르며 모든 사물이 은빛으로 물들었다. 연못 한가운데, 달수련이 만개하며 환한 빛을 냈고, 그 빛 속에서 개구락이는 천천히 발을 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넘어지고, 물을 마시고, 허우적거렸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었다. 마치 연못도 함께 응원하는 듯, 물고기들이 그 주위를 돌며 원을 그렸다. 연못

바닥엔 누군가 오래전에 던졌던 조약돌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개구락이의 첫 조약돌도 내려앉았다.

수영을 마치고 연못에서 나온 개구락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물을 이겨냈다는 걸 알았다. 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사이로 반사된 달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고, 엄마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달빛 연못은 잊지 않을 거야. 네가 처음 용기를 낸 순간을 말아야.”

그날 이후 달빛 연못은 개구락이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기억, 엄마의 손길, 첫 용기, 가문의 전통**, 그리고 **달의 축복**이 깃든 성지처럼 남게 되었다.

[연잎밥]

아직 두 다리로 멀리 뛰어오르지 못하던 시절, 개구락이는 배고픔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던 작은 개구리였다. 마을의 또래들은 연못가에서 깔깔거리며 먹이를 찾아다니고 새싹을 한입씩 베어 물며 놀았지만, 개구락이는 그저 가장자리 돌맹이 위에 앉아 떨어질까 봐, 물에 빠질까 봐, 늘 움츠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오후, 엄마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개구락이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특별한 밥을 지어줄 거야. 같이 가자.” 엄마가 이끄는 곳은 마을 바깥, 조용한 작은 연못이었다.

그 연못가엔 연잎이 넓게 퍼져 있었다. 엄마는 그중 가장 푸르고 탄탄한 잎을 골라 정성스럽게 씻고, 밥 위에 잣과 은행, 대추를 올려 부드럽게 연잎으로 감쌌다. 바구니엔 이미 불린 찹쌀과 작은 돌솥이 준비되어 있었다.

개구락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다. “엄마, 왜 밥을 잎으로 싸?” 엄마는 연잎을 물에 살짝 담그며 말했다. “연잎은 흙탕물에서도 가장 깨끗한 곳에 피어나. 밥도 연잎처럼 네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피어나면 좋겠구나.”

돌솥이 달아오르고, 잎사귀 안의 밥이 뜨거운 김을 내며 익어갈 때, 연못가엔 연잎밥의 은은한 향이 퍼졌다. 바람은 조용했고, 새들은 그 향기에 이끌려 가까운 나뭇가지에 내려앉았다.

엄마는 작은 잎그릇을 만들어 개구락이에게 밥을 한 덩이 떼어주었다. “처음엔 조금씩 먹어. 뜨거우니까.” 개구락이는 조심스레 한입 베어 물었다. 잎 향이 코끝을 간질이고, 밥은 고소하면서도 약간 달큰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이 밥을 먹을 땐, 네 안의 걱정들도 잎사귀처럼 조금씩 풀어지는 거야.”

개구락이는 연못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다. 수면엔 작은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그 위로 연잎이 잔잔히 떠 있었다. 엄마는 그 곁에서 나직이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개구락이의 심장을 살짝 간지럽히며 조금씩 마음속 두려움도 풀어주었다.

밥을 다 먹고, 엄마는 개구락이의 손을 잡아 연못 가장자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말했다. “밥을 먹었으니 이제 조금 더 강해졌겠지? 우리 연잎 하나 띄워보자. 너의 첫 용기가 이 물 위를 잘 흘러가길.”

개구락이는 연잎 한 장을 작은 두 손으로 정성껏 펴고 물 위에 살며시 띄웠다. 연잎은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연못 한가운데로 흘러갔다. 달빛은 없었지만, 그날의 햇살은 연못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마음속 연잎밥도, 이 잎도, 조금씩 널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렴."

그날 이후 연못가에서 먹은 그 첫 연잎밥의 향과 따스함은 개구락이의 마음속 깊이 남아, 그가 두려움에 맞설 때마다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힘이 되었다.